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2. 12 | Vol. 223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법왕사 만불전 · 본당

단집 조성 모연문



단집은 법당에 모신 불보살을 장엄하는 하나의 장치로 불상 위에 또 하나의 집을 지어 올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치 집을 겹쳐 지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단집이라 일컫습니다.

수천 조각의 목재를 정교하게 다듬어 짜 맞춘 극히 섬세하고 화려한 단집은 예부터 불전이나 궁전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그 상징성과 의미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단집은 두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부처님 머리 위에 설치한 일종의 장엄 구로서의 보개(寶蓋, 또는 天蓋)로서의 상징성이며, 다른 하나는 단집이 법당을 불국정토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단집은 불국정토의 궁전 모습을 본떠서 만든 모형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당에 단집을 조성함으로써 비로소 법당은 불국정토가 되며 불보살님의 위엄과 권위를 최대한 장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왕사에서는 큰법당 본존불 위에 장엄한 단집을 조성하여 법당을 더욱 여법하게 조성할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각령단[覺靈壇] 조성



대한불교 조계종 대종사 원공당 정무 큰스님은 법왕사의 회주로 주석하시다가 지난 2011년 입적하셨습니다. 큰스님은 한국 현대 선불교의 대표적 선사인 전강스님의 법맥을 이으시고 이를 법왕사에 전해주신 분입니다.

법왕사에서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정법 수행 풍토를 드높이고자 큰스님의 각령단을 본당에 조성코자 하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각령이란 입적한 고승(高僧)의 혼령(魂靈)을 높여 이르는 말로 진영을 봉안하여 단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04 깨침의 향기
진정한 보살도는
부모님을 부처님 섬기듯 하는 것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8 비슬산방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같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사람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보아도 옳게 보지 못한다 · 본원스님
- 14 불교상징의 세계 IV
부처님 땅 지키는 수호신의 집, 천왕문 · 조명래
- 18 용두마을
선지식(善知識)의 소중함 · 묘도스님
- 20 법회이야기 | 동지
참회하고 소원 비는 작은 설
- 22 명찰순례
마음까지 쉬게 하는 고즈넉한 산사, 쌍봉사
- 26 법왕사소식
- 28 법왕사게시판
- 31 해오름소식
- 32 해오름게시판

진정한 보살도는 부모님을 부처님 섬기듯 하는 것

원공당 정무 대종사



이 세상에서 최상의 선은 바로 효요, 최고의 악은 바로 불효입니다. 효심이 천심입니다.
이와 더불어 남의 부모님도 자기 부모님 모시듯 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놀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보살은 보살도(菩薩道)를 행하기 위한 큰 원(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 중생은 은혜(恩惠)를 갚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 중생은 부모님, 국가, 이웃, 스승님의 은혜 덕택에 이 세상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으로부터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받은 다섯가지 은혜를 갚지 않으면 빚이 됩니다. 빚을 제때 갚지 않으면 그것은 곧 죄(罪)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되기 전에 빚을 다 갚아야 합니다. 죄가 되면 그 죄를 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편안하게 죽을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은혜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8가지는 어머니 은혜입니다. 부모님 은혜는 살아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한량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부모님의 노고를 알기만 해도 그 은혜는 갚아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전생에 다 갚지 못한 부모님 은혜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 온 것입니다.

불교에 보면 무연중생 부제도(無緣衆生不濟度), 일체중생 부제도(一切衆生不濟度)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자기와 인연이 없는 사람은 제도할 수 없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도 스스로 발심(發心)하지 않으면 부처님도 결코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갖기 위해서는 부처님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 공부라는 것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의 마음은 청명해지고 환희로 넘쳐나면서 이 세상이 너무나 즐거울 것입니다. 나날이 즐거우면 병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이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빛을 지고 사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일 이 세상에 부처님이 안 계시면 부모님을 부처님처럼 섬겨라”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곧 부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효행은 만선(萬善)의 기본입니다. 천지신명을 다 섬겨도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부

모님이 최고의 신이고 부모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오게 한 조물주입니다. 그래서 항상 섬없이 부모님을 공경(恭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침을 해서는 안됩니다.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상의 선은 바로 효요, 최고의 악은 바로 불효입니다. 효심이 천심입니다. 이와 더불어 남의 부모님도 자기 부모님 모시듯 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은(報恩)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건실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성숙(成熟)된 인간입니다. 건강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 악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도 치매를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가족의 사랑과 이해

뿐입니다.

임진왜란 때 수군장군이자 가사
문학의 대가인 노계 박인로가 이
런 시를 지었습니다.

“반중((盤中) 조홍(早紅) 감이 고
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은즉 하다
마는
품어가 반길 이 없을 새 글로 설워
하노라”

때갈 고운 홍시를 보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는 애절한 마음
이 담긴 이 시조는 중국의 ‘회궐
고사’가 생각나 지은 시입니다.
중국 오나라 사람인 육적이 원술
이라는 부잣집에 갔는데 음식상
에 귀한 유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생각난 육적은
자기가 먹는 대신 어머니께 드리
려고 그 유자를 옷 속에 감추었습
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 주
인에게 인사를 하려고 엎드리다

그만 품속에 숨겼던 그 유자를 뜨
려뜨리고 맙니다. 그것을 본 주인
이 그 까닭을 물으니, 육적은 그것
을 어머니께 드리기 위해 감추었
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
은 어린 것이 하도 기특해서 칭찬
하고 꿀을 따로 짜서 보냈다고 합
니다.

가난에 찌든 소년이 이처럼 맛있
는 과일을 얻자 어머니를 먼저 생
각했던 것처럼 박인로도 홍시를
보고 부모님을 떠올렸던 모양입
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세상
을 떠났으니 홍시를 품어다 바치
고 싶어도 정작 반길 사람이 없다
는 것을 알고 서러움이 복받쳐 올
랐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
리 산해진미(山海珍味)를 차려놓
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
서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잘
해드리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감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사람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 임진년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매년 연말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해인들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며, 많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불자님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법왕사 또한 시중 안팎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올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나라의 명운을 5년간 책임질 대통령 선거야말로 국가대사 중에 가장 중차대한 대사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는 누구나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지



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할 지도자감인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국민을 들먹이지만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혹은 자신이 속한 당파를 위해서 국민을 참칭하지

는 않는지, 희생은 요구하지 않으면서 달콤한 열매만 약속하지는 않는지, 종교적으로 편향되고 뼈뿌리진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서 뽑아야 할 것입니다.

●● 우리 불자의 입장에서 좋은 지도자란 어떤 인물일까요?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은 바로 보살(菩薩)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궁극적 깨달음을 뒤로 미루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

해 스스로 중생의 삶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즉, 부처가 될 자질이 부족해서 성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생들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 그들을 깨우치는데 진력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은 곳으로 보내며 중생을 향한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 매진하는 보살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고 특히 사회 지도층의 부패가 더욱 심각한 요즘 보살처럼 육바라밀(六波羅密)을 철저히 수지보행하는 지도자가 절실합니다.

육바라밀의 첫째는 보시바라밀(布施波羅密)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진 자의 보시 정신만이 우리 사회의 분열을 막고 대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지계바라밀(持戒波羅密)입니다. 리더란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랫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리더를 인정하고 따르겠습니까? 지계정신은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입니다.

셋째는 인욕바라밀(忍辱波羅密)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이야말로 리

더의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는 정진바라밀(精進波羅密)입니다. 물을 거슬러 오르는 배는 한 순간이라도 노젓기를 멈추면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국가의 지향점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정신도 빠질 수 없습니다.

다섯째는 선정바라밀(禪定波羅密)입니다. 대통령이 결재하는 사안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한 순간의 결심이 나라의 명운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리더라면 항상 동요하지 않고 호수처럼 고요한 선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는 지혜바라밀(智慧波羅密)입니다. 리더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식견이 부족하면 전문가의 보좌를 받아서 해안을 지녀야 합니다.

●● 부처님께서 전하신 육바라밀의 수행은 예나 지금이나, 아니 우리 인류가 존속하는 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며 특히 리더의 덕목으로 빛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의 지혜로 우리나라를 더욱 도덕적이고 부강하게 키울 지도자를 뽑는데 적극 동참합시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보아도 옳게 보지 못한다

본원스님 / 토굴 정진중



하늘이 보물을 소나기처럼 내려도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는 없으리라.

욕망에는 적은 쾌락과 많은 괴로움이 있음을 아는 이는 현자(賢者)이리라



몸에 병이 났다 하더라도 오래 되고 죽을 병만 아니라면 체내(體內)에 갖춰진 자생력(自生力)을 바탕으로 ‘의사의 치료와 지시’에 따른 약물, 그리고 ‘환자 자신’이 낫겠다는 의지(마음)만 있으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현대 의학의 소견(所見)이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몸은 중병 아닌 이상, 웬만큼 스스로 치유되는 힘(자생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자생력은 의술이나 약보다도 치료효과가 탁월하다. 다만 “환자 자신이 ‘반드시 나아야겠다, 살아야겠다’ 며 병마와 싸워 이겨야 한

다는 강건한 의지가 있어야 몸속에 있는 병원(바이러스)과 맞서는 강력한 항체를 체내에 생성시켜 질병을 물리친다”는 얘기이다.

강한 의지가 나쁜 습관 끊어

살면서 술이든 담배든 혹은 마약이든 일단 한번 빠져들면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쉽게 끊는다거나 그것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아마도 ‘습관에 젖어버린 중독성’ 때문일 텐데, 이 경우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고자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격리치료, 의술과 약물, 이웃의 조인’ 보다는 악습을 떨치는 선행(先行)조건으로 정신(마음)을 치료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나쁜 습관을 떨쳐야겠다’고 거듭 다짐하며 마음으로 새기는 굳은 의지의 지속성 여부에 달린 것이라고 봄이 객관적이고 설득력을 지닌 바른 견해일 것이다.

그렇다면 ‘몸에 난 병이지만 이 또한 마음을 근본으로 한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의구심을 가지며 반박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

앞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는 전체적 환경을 의미하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 자체는 선악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기¹⁾(無記)일 수도 있다. 그것은 처음부터 다스려지지 않은 마음 상

태에서 외물(外物)과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친 형태의 것이기에 자칫 흐려질 수 있는 사물의 왜곡됨을 지양하고자 올바른 시각에서 보려 하고 바르게 생각함이 ‘정사(正思)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 같은 ‘바른 생각’과 결부시켜 사람이 선(善)이나, 악(惡)이나는 문제는 고래(古來)로 최대의 논쟁거리의 한 주제이다. 곧 ‘인간의 본성(本性)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과 물음이었다.

일반적으로 학교 교과서를 통해 배워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춘추시대 순자가 말한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한 성품이다’는 성악설(性惡說)과 후기 인물 맹자가 주장한 ‘인간의 본성은 날 때부터 선한 성품이다’라는 성선설(性善說)이다.

순자(荀子)는 ‘성악설’의 논리를 펴면서 “쭈도 마(麻) 속에서 나면

각주 1) 3성(性)의 하나. 온갖 법의 도덕적 성질을 3종으로 나눈 가운데서 선도 악도 아닌 성질로서, 선악 중의 어떤 결과도 끌어오지 않는 중간성(中間性)을 말한다. 이 무기에는 다 같이 선악의 결과를 끌어올 능력이 없으면서도 수행을 방해하는 유부(有覆) 무기와 방해하지 않는 무부(無覆) 무기가 있다.

붙들지 않아도 곧아진다. 따라서 어진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곳을 골라서 거처로 정하고, 선한 이와 더불어 친교한다. 유익하지 않은 것은 멀리하고 옳은 것을 가까이 하라”고 했다.

‘쭉쭉 자란다’ 하여 쭉이라지만 보통 쭉은 흙에 바짝 붙은 채 산다. 그런 쭉이지만, 베어 말려서 삼배를 찌는 마걸에 붙어 돌아나면, 쭉의 생장이 마의 영향을 받아서 위로 쭉 뻗는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여건 속에 자라며, 어진 이를 가까이 해야만 그 자신 또한 어진 현자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곧 ‘상황과 조건’이 가지는 환경적 요인을 두고 말함이다.

반면 맹자(孟子)는 ‘정선설’을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로 ‘사단칠정(四端七情) 설을 폈다. ‘사단(四端)’이라 함은 인간 도덕성에 관한 설로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 없어 하는 마음인 측은(惻隱),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인 수오(羞

惡), 겸손해 하는 마음인 사양(辭讓), 선악을 가지는 마음인 시비(是非)의 네가지 품성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인(仁), 의(義), 예(禮), 지(知), 덕(德)이 된다고 하였다.

부단한 심신수련이 욕망 극복

칠정(七情)이라 함은 『예기(禮記)』와 『중용(中庸)』에 나오는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사랑함과 미워함과 욕망의 마음인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악(惡), 욕(慾)이다. 이 또한 ‘상황과 조건이 가지는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이를 요약하면, 비록 선(善)을 품성으로 받아났지만, 그 선을 바탕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덕(德)을 쌓기 위해서는 객관에 물들기 쉬운 욕념을 본래



의 타고난 선한 성품으로 지켜야 하기에, 부단히 심신(心身)을 닦고 수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타고난 성품이 악의 요소인지라 이를 그냥 두면 악의 품성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일삼을 테니, 마땅히 항상 어진 이를 가까이 하도록 힘쓰며 교육과 부단한 수양을 통해 선한 심성(心性)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성악설의 기본 요지(要旨)’다.

몸닦는 것은 바른 마음 가지는 것
인간 본성(本性)을 두고 ‘정사(正思)’와 관련 지어 마음과 생각이 차지하는 부분을 다룸에 있어, 본성이 가리키는 ‘성품 성(性)’의 문자를 보면 ‘심방 변(心)’에 ‘날 생(生)’자로 합성된 글임을 알 수 있다. 즉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성품’이 되고 따라서 본성(本性)이란 타고난 성품을 이르는 말이다.

결국 ‘본성’ 또한 마음의 영역으로 생각이 가지는 마음의 지배를

받는 유동적인 것이므로, 공자는 『논어(論語)』에서 ‘사람의 본성은 대체로 비슷하나 환경과 교육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또 다른 유교경전 『대학(大學)』에 마음에 대해 써어 있는 대목을 보면 “몸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바로 하는데 있다. 마음에 노여움이 있으면 그 마음은 바를 수 없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은 바를 수가 없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도 그렇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그 마음은 바른 마음이 아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보아도 옳게 보이지 않고 들어도 옳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따라서 몸을 닦는 일은 그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일이다.”고 하였다. 이는 불교의 유심(唯心)사상을 그대로 답습한 양 적어도 그 글에 있어서는 하나 같이 흡사한 내용을 보인다.

부처님 땅 지키는 수호신의 집, 천왕문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일주문은 수미산이 시작되는 하단에 해당한다면, 천왕문은 수미산 중턱에 상응한다. 수미산 우주론에 따르면 수미산 중턱인 4만2천(혹은 4만) 유순 지점의 동서 남북에 있는 유건타라는 우뚝 솟은 봉우리 위에는 사천왕이 권속들과 함께 살고 있다 한다. 이곳을 사왕천이라고 하며 여기부터 실질적인 천신들의 세계이다.

수미산 우주론은 철저하게 판구조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 천신들은 사왕천과 수미산정인 도리천에만 살고 있다. 그러므로 사왕천은 천신들의 첫 번째 거주처가 되며 그래서 욕계 제1천이라고 한다.

사천왕은 사왕천 이하의 세계 관장

인도불교는 천신들이 사는 세계, 즉 삼계를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의 3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중에서 욕계는 욕망이 있는 천신들의 세계로 인간계와 같은 갈등과 투쟁의 세계이다. 색계는 욕망은 없고 물질적인 존재감만 있는 세계로 하열한 집착을 끊은, 보다 고등(高等)한 경계이다. 무색계는 물질마저도 없는 순수한 정신의 세계를 의미한다. 고도의 명상 상태와 같은 모든 거친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세계가 무색계이다. 사왕천은 삼계 28천 가운데 욕계 제1천에 속하는 곳으로 가장 낮은 천신들의 세계라고 보면 된다.

사천왕은 사왕천 이하의 세계를 관장하는 방위신으로 동방의 지국천왕, 남방

의 증장천왕, 서방의 광목천왕, 북방의 다문천왕이다. 이중에서 북방의 다문천왕의 권능이 특별히 수승하여 다른 천왕과는 달리 3개의 천궁과 이들 천궁 사이에 휴식과 목욕을 할 수 있는 유희원(遊戲院)과 연못을 소유한다. 그리고 다섯 야차의 시위를 받으며 천왕들의 회합을 주도한다.

사천왕은 인도 원주민들의 토착신이었던 하급의 야차를 거느리고 사왕천 이하의 세계를 관장하며 악을 막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방비지악(防非止惡)을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사천왕의 역할이 크게 나타난다.

천왕문 사천왕의 지물은 방비지악의 상징

천왕문은 사왕천을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찰의 동서남북 네 방위에 사천왕이 자리하고 있어야 하지만 중국의 일향적(一向的) 건축구조의 영향으로 남향에 단일화되어 함께 모여 있는 것이다.

서양의 명암기법을 전체 화면에 사용한 실험적인 그림으로 18세기 한국불화 양식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되어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된 용주사 대웅전의 후불탱화에는 사천왕이 네 방위에 있어 흥미롭다.

사천왕은 천왕문에 함께 배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천왕문은 3칸 건물로 중앙은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이며, 동쪽에는 동방의 지국천왕과 남방의 증장천왕이, 서쪽에는 서방의 광목천왕과 북방의 다문천왕이 자리하고 있지만 수미산의 동서남북의 네 방위에서 방비지악을 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사천왕의 구분은 어느 방위에 있으며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에 따라 나누어진다. 동방의 지국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고, 남방의 증장천왕은 보검을 가지고 있고, 서방의 광목천왕은 용과 여의주를 가지고 있고, 북방의 다문천왕은 보탑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사천왕이 들고 있는 지물들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정형화되었다.





사천왕은 부처님의 진리를 지키는 호법

신라 신문왕 2년(682)에 완성된 감은사지 서삼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금 동사리외함(舍利莊嚴具金銅舍利外函)에 장식된 사천왕상과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원원사지(遠願寺址) 삼층석탑의 1층 몸돌에 양각된 사천왕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 가운데 하나이다.

사찰에 사천왕을 모시는 것은 ① 사찰을 지키고 수호하며, ② 재가 신자들에게 도량 안은 사천왕에 의해 온갖 악귀가 물러난 청정한 곳을 알려 주는 것이며, ③ 일심(一心)의 일주문을 지나 수미산 중턱인 청정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는 수행의 상징적 의미이고, ④ 사천왕의 위압적인 모습을 보고 속세의 모든 잡념을 씻어 부처님의 법을 담은 청정한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신라 사람들은 신라 땅이 ‘부처님의 땅’이라는 불국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사찰 입구에 부처님의 땅을 지키는 사천왕을 모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었다. 사천왕이 부처님의 진리를 지키는 호법의 개념은 현실세계에서 신라 땅, 즉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개념이 발전되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천왕은 무관복장을 하고 당당한 기품을 보이고 있다. 불교적 우주론에 따르면 사천왕은 천왕이기 때문에 무관복장을 하지 않



는다. 그러나 사천왕이 무관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은 방위신 및 수문신의 역할을 하면서 무관의 형식의 이미지로 고착화된 것으로 보여 진다.

사천왕은 악귀를 자발적 복종으로 부처님께 귀의시켜

사천왕은 악귀를 밟고 있는데 이를 생령좌(生靈座) · 악귀좌(惡鬼座) · 귀좌(鬼座)라고 한다. 악귀를 밟고 있는 것은 천하의 악에 대한 제압을 상징하고 천왕문은 악귀로부터 해당 사찰의 굳건한 수호를 의미한다. 사천왕은 무자비하게 악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자발적인 복종을 통해 부처님께 귀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원원사지 삼층석탑에 양각된 사천왕상에게 밟힌 악귀들이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를 표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천왕이 밟고 있는 악귀의 모습이 추풍령을 경계로 북쪽 지방에서는 청나라 만주족으로 표현하고 있고, 남쪽지방에서는 왜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당했던 비극과 수치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호국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때로는 탐관오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학정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선지식(善知識)의 소중함

묘도스님 / 법왕사 총무



요즘 법왕사에는 제23회 백고좌 법회로 제방의 경(經)·율(律)·론(論) 삼장(三藏)에 정통하고 해박하신 법사스님들이 매일 오십니다.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불원천리(不遠千里) 마다하고 부처님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법사스님들을 뵈 때마다 존경의 일념만 듭니다.

이런 선지식을 친견하고 감로법문을 듣는 것은 속세(俗世)의 복이 가져다 준 소중한 불연(佛緣)으로 더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여 청법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선지식이라 함은 선한 법이 있는 까닭이니,
무엇을 선한 법이라 하는가.
짓는 일이 스스로 즐겁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항상 중생을 위하여 안락을 구하며,
다른 이의 허물을 보고도 단점을 말하지 않고
입으로는 선한 일만 말하나니,
이런 뜻으로 선지식이라 합니다.

허공에 있는 달이
초하룻날부터 보름날까지는 점점 자라나니
선지식도 그와 같아서

배우는 이로 하여금
나쁜 법을 멀리 하고 선한 법을 자라게 합니다.
선지식을 친근하는 이는
본래 계행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할 지견이 없었더라도 문득 있게 되며,
구족하지 못한 이는 구족하게 되나니,
왜냐하면 선지식을 친근하는 까닭이며,
친근함으로 인해 대승경전의 깊고 묘한 이치를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뱃사공이 사람을 잘 건네주는 까닭으로
훌륭한 뱃사공이라 하나니,
부처님과 보살도 그와 같아서
나고 죽는 바다에서 중생을 건네주므로 선지식이라 이름 합니다.

그러므로 범화경 묘장엄왕 본사품에도
“선지식은 큰 인연이라.
즉 교화하고 인도해서
부처님을 친견케 하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성불의 인연을 맺어줄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백고좌대법회에
많은 불자님들이 불청지우(不請之友)¹⁾로써 발걸음 해주시기를 합장해 봅니다.

각주 1) 유마경에 나오는 ‘衆人不請友而安之’(보살은 여러 사람들이 청하지 않더라도 벗이 되어 그들을 편하게 해준다)의 줄인말로 ‘대자대비심으로 중생을 고통에서 구해주 시고 중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스스로 오셔서 도와주는 불보살님처럼 상대방이 청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자진해서 도와주는 친구’를 말한다.

참회하고 소원 비는 작은 설

冬至

편집실

동지(冬至)는 일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이다. 낮이 가장 긴 하지를 기점으로 해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여 동짓날 극한에 이르고 다음날부터 다시 길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옛사람들은 이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여 축제를 벌이고 태양신에 대한 제사를 올렸다.

광복 전만 하더라도 동지를 아세(亞歲)라고 하여 팔죽을 쑤어 먹으면서 정월 설날에 떡국을 먹고 ‘한 살 더 먹었다’ 하듯 동짓날 팔죽을 먹고도 ‘한 살 더 먹었다’ 고 하였다. 이는 상고시대 때부터 동지를 설로 삼았던 풍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팔죽과 관련된 풍습

경상도 지방에서는 동지에 팔죽을 쑤어 술가지에 적셔 집안 대문을 비롯하여 담벼락이나 마당에까지도 뿌리고 동구(洞口)에

있는 신목(神木)에도 금줄을 치고 팔죽을 뿌리는 풍속이 있는데, 이는 팔죽의 붉은 색으로 샷된 기운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러한 팔죽의 잡귀 쫓는 능력은 확대되어 동짓날 외에도 쓰이게 되었다. 즉, 이사를 가거나 새 집을 지었을 때 팔죽을 끓여 집안 구석구석이나 장독대에 뿌렸는데, 이것은 새 집에 깃든 잡귀들을 쫓아 새 집에서 평안 무사하게 지내고자 함이었다.

불교에도 이러한 습속이 들어와 절을 새로 짓고 부처님을 모시는 점안 봉불 의식을 봉행할 때, 팔죽을 쑤어 공양을 올리고 날 팔을 뿌려 잡귀를 쫓는 의례를 볼 수 있다. 한국 불교에서는 동지를 귀한 날로 삼고 있다. 그러나 문헌과 역사의 기록에서 그 확실한 유래와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동지를 중요한 날로 여겨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옛날 중국

의 총림(叢林, 대중이 많이 모여 사는 선원)에서는 동재라 하여 절의 주지 스님이나 일반 신도가 시주가 되어 동짓날에 대중을 위하여 베푸는 재회를 봉행하였다.

또한 총림의 4절이라 하면 결하(結夏, 여름 결제), 해하(解夏, 여름 해제), 동지, 연조를 말하며 그중 동지를 동년이라 하여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여 왔으며 동지의 전야를 동야(冬夜)라 하여 성대하게 치렀다고 한다. 또 젊은 스님들이 노사(老師)들을 찾아가서 일년 동안의 지도를 감사하고 앞으로 도 지도를 바라는 인사를 하였다고 한다.

동지와 불교

음력 11월은 동짓달이고 양력으로 12월 21일~23일쯤이 동지이다. 통상 절에서는 동짓날 세가지 재난(三災)을 물리치고자 동지 불공을 올린다. 불교에는 성(成), 주(住), 괴(壞), 공(空)의 사겁(四劫)으로 나타내는 세계관이 있는데 세계가 성립되어 머무르고 텅빈 기간의 끝에는 세 가지의 재난이 일어난다고 한다. 즉 도병(刀兵)이라 하여 탐내는 마음으로 인해 성내는 마음을 일으켜 칼로 살상하는 재난, 그리고 질병, 기근의 소삼재가 있고 수재, 풍재, 화재의 대삼재가 그것이다.

절에서는 이날 모든 삼재를 물리쳐 나라가 화평해지고 국민이 평안해 지도록 국태민

안(國泰民安)의 대원을 발하여 기도를 올린다. 신라와 고려 때에는 중동 팔관회(仲冬八關會)라 하여 국가적인 행사로 온 국민의 축제일이기도 하였으니 동지를 '다음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아세(亞歲)라고 하고, '작은 설'이라고 하여 축하하며 궁중에서는 원단(元旦)과 동지를 가장 으뜸 되는 축일로 생각하고 연회를 베풀었고, 해마다 중국에 예물을 갖추어 동지사(冬至使)를 파견하여 이날을 축하하였다 한다.

잡귀 쫓는 붉은색

민가에서는 팔죽 속에 찹쌀로 만든 웅서래미라는 단환자를 넣어 먹으면 역귀를 쫓는다 하여 팔죽 국물을 벽이나 문짝에 뿌리기도 했다.

한편 궁중에서는 관상감에서 만들어 올린 달력을 모든 관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것을 여름에 부채를 주고받는 풍속과 아울러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 하였다.



마음까지 쉬게 하는 고즈넉한 산사, 쌍봉사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 해탈문을 넘어서면 온 세상이 잠든 듯 고요한 절안이 마음까지 쉬게 한다고 할 정도로 쌍봉사는 조용하면서도 아늑하다. 전남 화순에 있는 쌍봉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광사의 말사로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쌍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웅전이다. 조선 중기의 목조건물이었던 대웅전은 정면 1칸 측면 1칸인 3층의 정방형 단칸집으로 통일신라시대 양식을 그대로 지닌 탑과형 건물이다. 이런 희귀한 양식은 법주사 팔상전과 쌍봉사 대웅전 2동뿐이다. 아쉽게도 대웅전은 탑과형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이었으나 1984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현재의 대웅전은 문화재관리국이 그간의 자료를 수집하여 1985년 8월 착공하여 1986년 12월 준공, 원형대로 복원한 것이다. 대웅전의 지붕이 3층처럼 올라가게 지은 것

은 절을 창건한 철감선사가 절터가 뚝단배 형국이라 하여 대웅전을 마치 배의 돛처럼 만든 것이라는 말도 있다. 1962년에 해체·수리하던 중 발견된 3층 종도리에 묵서한 상량문이 따르면 원래 3층전(三層殿)이라 불렀으며 1690년(숙종 16)에 2중창했고, 1724년(경종 4)에 3중창했다고 한다.

대웅전이 불길에 휩싸였을 때, 인근 마을 농부가 달려와 삼존불을 한분씩 등에 업고 나온 덕택에 대웅전 안의 목조삼존불상(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51호)은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조선 숙종 20년(1694)에 만들어진 목조삼존불상은 석가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왼쪽의 아난존자와 오른쪽의 가섭존자가 합장하고 서 있는 전통적인 삼존상 양식이다. 지장전에 있는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도 지난해 11월 보물 제1726호 승격된 귀중한 자료이다.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조선시대 17세기 중·후반 활발한 조각활동을 펼친 조각승 운혜(雲惠)



대웅전 _ 탑파형식의 독특한 건물이었으나 1984년 화재로 소실되고 현 대웅전은 1986년 원형대로 복원한 것이다.



① 호성전 _ 신라시대 고승인 철감선사와 조주선사의 영정을 모신 정자각 ② 국보 제57호 쌍봉사 철감선사탑 _ 철감선사는 신라 구산선문 중 일문인 사자산문의 개조이다. ③ 보물 제170호인 철감선사탑비

의 불상 양식 연구와 운해파 조각승의 조각 활동과 경향을 시기별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불상의 표면에는 고색창연한 채색 문양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조선 후기의 채색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지장보살삼존상 좌우에는 조선시대 시왕상 중에서 가장 빼어난 조각 기법의 국보급 시왕상이 의자에 앉아있다. 시왕들 사이에는 시왕을 보좌하는 판관, 귀왕, 동자, 사자 등 6구가 서 있는데 조상기에는 각 2구씩 8구가 기록되어 있어 2구가 분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조상들의 채색은 아직도 현대기법으로 재현할 수가 없어 퇴색한 예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국보 제57호 쌍봉사철감선사탑은 철감선사의 부도이다. 신라 구산선문 중의 일문인 사자산문의 개조인 철감선사(798~868)는 통일신라시대의 승려로, 28세 때인 헌덕왕 7년(825) 당나라에 들어가 유학하고, 문성왕 9년(847)에 범일국사와 함께 돌아와 경문왕을 불법에 귀의하게 하기도 하였다. 경문왕대에 이곳 화순지역의 아름다운 산수

에 이끌려 절을 짓게 되는데, '쌍봉'인 그의 호를 따서 '쌍봉사'라 이름하였다. 경문왕 8년(868) 71세로 이 절에서 입적하니, 왕은 '철감'이라는 시호를 내리어 탑과 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8각으로 구성된 탑은 대부분 잘 보존되어 있으나 아쉽게도 꼭대기의 머리장식은 없어진 상태이다. 탑을 만든 시기는 선사가 입적한 해인 통일신라 경문왕 8년(868) 즈음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각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다듬은 석공의 정성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작품으로, 당시에 만들어진 부도 가운데 최대의 걸작품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보물 제170호인 철감선사탑비는 비의 몸돌이 없어진 채 거북받침돌과 머릿돌만 남아 있다. 네모난 바닥돌 위의 거북은 용의 머리를 하고 여의주를 문 채 었드려 있다. 오른쪽 앞발을 살짝 올리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통일신라 경문왕 8년(868)에 세워진 비로, 전체적인 조각수법이 뛰어나며 거북받침돌의 조각들은 매우 훌륭한 경지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쌍봉사가는 길

승용차 88고속도로로 광주로 가서 너릿재 터널을 지나 화순읍 너머 능주방면에서 이양으로 간 후, 이양면 금릉리 삼거리에서 보성 북대 방면으로 가는 지방도 818호선을 따라 좌회전 하면 쌍봉사를 만날 수 있다. 다른 길로는 이양면 소재지를 경유 보성 방면으로 가다보면 매정 1구 삼거리 방면에서 좌회전 후 직진하는 방법이 있다. | **대중교통** 화순 군내 버스 218번이 쌍봉사까지 운행하고 있다.

2013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 회향



2013학년도 대입수능 100일 기도가 지난 11월 7일 100일 동안의 긴 여정 끝에 회향했습니다. 특히 수능시험일인 8일에는 고득점기원 특별기도회가 법왕사 법당에서 30여명의 수험생 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오후 4시까지 대비주와 관세음보살 정근으로 수험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극정성 마음을 모아 기도 에 동참하였습니다.

11월 24일, 정목스님 초청 특별법회 열려



제23회 백고좌법회 79일차 특별법회로 11월 24일 BBS 인기 진행자인 정목스님 특별초청 법회가 열려 대구의 불자 5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스님은 불교방송 프로그램인 '마음으로 듣는 음악'을 진행하면서 스님 특유의 온화하고 밝은 음성으로 불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번 법회에서 불자들은 그동안 전파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스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감로와 같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혜능스님 초청 입보살행론 특강 인기리 진행중



혜능스님(전 해인사 율원장)이 진행하는 '입보살행론' 강좌가 인기리에 진행중입니다. 법왕불교대학 중급반 특강으로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법왕사 복지관 대법당에서 열리는데 매회 50명의 불자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입보살행론'은 7세기 무렵 인도의 불교학자 산티데바가 저술한 보리심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서로 심도 있는 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에게는 필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강좌를 맡은 혜능스님은 복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밀교학을 연구하고 울산의 람림학당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또한 스님은 법왕사 백고좌법회에 매년 빠지지 않고 법문을 하고 있어 불자들과도 매우 친숙하시며 이번 강좌는 '입보살행론'을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문의 053-766-2805)

불교교양대학 기초 교리반, 중급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불교교양대학 기초 교리반, 중급반 수강생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초 교리반은 매주 목요일, 중급반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와 7시에 각각 열리며 강의는 주지스님께서 교리와 경전을 직접 강의합니다.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깨닫는 참된 불자가 되는 길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 053-766-2805)

● 특별초청 스님 법문 인기 모아



성담스님



정목스님

법왕사에서 진행중인 제23회 백고좌법회에서 라디오와 TV방송을 통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님초청 법회가 불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지난 11월 3일 58일차에는 BTN 인기 진행자 성담스님이, 11월 24일 79일차에는 BBS 인기 진행자 정목스님이 법사로 나와 스님 특유의 온화하고 밝은 음성으로 불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 임진년 동지 7일 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12월 21일 임진년 동지를 앞두고 15일부터 7일간 동지불공기도를 봉행합니다. 동지는 세속에서만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소중하게 여기는 세시풍속일로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를 올리는 시기이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울러 동지기도와 함께 내년도 법당 일년등도 접수하오니 사업반장, 학업성취, 건강을 기원하는 모든 불자들에게서는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원공당 정무 대중사 각령단[覺靈壇] 조성

법왕사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대중사 원공당 정무 큰스님의 각령단을 본당에 조성합니다. 각령이란 입적한 고승(高僧)의 혼령(魂靈)을 높여 이르는 말로 진영을 봉안하여 단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큰스님은 한국 현대 선불교의 대표적 선사인 전

강스님의 법맥을 이으시고 이를 법왕사에 전해 주신 분으로 법왕사에서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정법 수행 풍토를 드높이고자 큰스님의 각령단을 본당에 조성코자 하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법보시 해주신 분

- ◎ 혜능스님께서 『입보살 행론』 직접 녹취 낭송 본 CD 100개를 법보시해 주셨습니다.
- ◎ 덕산스님께서 저술하신 『염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란 책을 법공양으로 50부 보시해 주셨습니다.
- ◎ 법안스님께서 저술하신 『걱정 말고 기도하라』란 책을 법공양으로 100부 보시해 주셨습니다.
- ◎ 혜조스님께서 무비큰스님이 저술한 『사람이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 책을 백고좌 법회에 참석하신 법우님들께 법보시해 주셨습니다.

● 내년도 법왕사 달력에 사업체 광고를 하실 시주자를 모집합니다. 법왕사 달력은 5천부를 발행, 배포하므로 광고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매일 1만부를 발행하는 법왕사보에 불자 여러분의 사업체 광고를 접수받습니다.

● 임진년 10월 상달 7일간 산신기도가 11월 23일 입재하여 11월 29일 회향하였습니다. 매일 오후 1시 기도에 매일 20여명의 불자님들이 모여 비술산의 정기가 서린 산신단에서 개인의 심중 소원과 사업번창을 기도하였습니다.

● 제23회 백고좌법회 전회차 법회 동영상인 법왕사 홈페이지(bubwangsa.or.kr)에 올려져 있습니다.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불자님들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내년도 24회 백고좌법회는 정월 대보름 다음날부터 시작할 계획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왕사 게시판

● 새법우 명단

남 구 석혜영 석지영 최영순 권유환 천성애
 동 구 김영진 정은주 김지은 김동혁
 수성구 이동익
 달서구 정경래 김미연 정희수 정선훈 정보희
 울산 남구 차미희 정덕인 정주희
 부산 북구 이원석 최유진

법왕사의 새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복덕이 넘치는 신행생활 하시기 기원합니다.

● 새롭게 평생위패 모신 분

亡자모 김영유인 김씨춘구 영가(김진수 伏爲)
 亡엄부 밀양후인 박공성규 영가(박종헌 伏爲)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조상천도재 올리신 분

11월 3일 양봉훈, 혜영 복위 上世先亡 조상일체 靈駕
 11월 5일 이지수 복위 上世先亡 조상일체 靈駕
 11월 6일 양봉률, 혜진 복위 上世先亡 조상일체 靈駕
 11월 9일 이영호 복위 上世先亡 조상일체 靈駕
 11월 10일 전봉덕 복위 上世先亡 조상일체 靈駕
 11월 18일 이상열 복위 上世先亡 조상일체 靈駕
 11월 24일 조현봉 복위 上世先亡 조상일체 靈駕
 11월 25일 김팔경 복위 上世先亡 조상일체 靈駕
 11월 26일 이재학 복위 上世先亡 조상일체 靈駕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원불봉안 하신 분

3317 김경희 3321 강동한
 3322 정민경 3323 박재희

동참하신 불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각자 모신 원
 불의 가피가 무량하기를 기원합니다.

● 만불전 윤각 불사 동참자 명단

박해진 백월순 박종성 나은정 강호진 박연정
 강태우 강지연 박경훈 박수정 박도현 김무성
 박경원 김도영 신명균 신승훈 신현수 신격기

신종백 신종태 신호정 조철제 박정숙 조성민
 이재학 류윤만 이경숙 류희승 류주연 백상현
 백승열 백인혁 백인수 박병기 주복귀 김경빈
 박준형 박동근 황미선 박준범 박준용 김상수
 김하균 김성호 김옥희 서미경 서민관 박채진
 서미희 박주연 박준혁 서수민 정 돈 정국영
 정시영 정영미 정선규 정재왕 김팔경 김기덕
 박경영 유명옥 박진오 박인정 김창식 권혁일
 권지현 일진행 차미희 정주희 정덕인 김상한
 김민지 김태영 김우영 이정상 전옥남 이육진
 이도윤 이나경 이승엽 이승아 한규매 김희성
 구실상화 권연실화 백보현행 조감로연
 한을용 영가 이해원 영가 정동필 영가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여법한 도
 량을 장엄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 본당 윤각 불사 동참자 명단

손정열 강소영 서정원 양문갑 황춘연 양봉훈
 양혜영 양지영 양영갑 권기정 양혜진 양봉률
 조현갑 조민규 김경준 김경진 구승우 도경식
 구영미 구제철 구제욱 도경식 최태희 박동근
 황미선 박준범 박준용 김상수 석현진 김기효
 김경원 박백규 최서원성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여법한 도
 량을 장엄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 원공당 정무대종사 각령단 불사 동참자 명단

김상수 이지송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여법한 도
 량을 장엄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 새롭게 인등 모신 분

734 신지은 735 하일화 736 김종욱
 737 김경준 738 김경진 739 김순옥
 740 박윤제

하나의 인등이 세상을 밝힙니다. 정성이 담긴 등을
 밝혀 지혜, 복덕, 수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왕사 게시판

새롭게 산신인등 모신 분

492 김수용 493 김준호 494 최태수
495 최명진 496 최명우 497 장 현
498 석혜영 499 석지영 162 이동익
163 이상혁 500 우영근 501 권윤희
502 천성애 503 이정음 504 구자환
505 김수현 506 김정환

하나의 인등이 세상을 밝힙니다. 정성이 담긴 등을
밝혀 지혜, 복덕, 수명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장탱화 조성 불사 동참자

권영신 권영준 김규현 김은정

대작불사 도움주신 분

김정국(100만) 권오삼(2,000만, 서울 동작구)
오광진(200만, 서울 양천구 신월)
박소영(200만,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장지영(100만,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민우(100만, 서울 관악구 대학동)
김성훈(100만, 대구 남구 봉덕동)
박성호(100만, 서울 관악구 대학동)
윤지현(100만, 서울 신림9동)
이재왕(100만, 수성구 상동)
이상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고좌 법사비 도움주신 분

차미희(120만) 양문갑(50만)
◎ 칠곡 대원사 주지이신 현정스님께서 법사비
를 불사비로 내놓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양진찬, 최정숙님의 장남 명준 군의 결혼식이
11월 4일 웨딩비엔나 3층 루비홀에서 있었습
니다.
◎ 우종돌, 이율화님의 차남 지수 군의 결혼식이
11월 18일 웨딩르네상스 2층 밀레니엄 홀에
서 있었습니다.

◎ 박장호님의 차남 제석 군의 결혼식이 11월
25일 대구 프린스호텔 본관 3층 프린스홀에
서 있었습니다.
◎ 전주수님의 차남 정재 군의 결혼식이 12월 8
일 오월의 정원 2층 자스민홀에서 있을 예정
입니다.

CMS 접수하신 분(10/15~11/14)

한평불사	백춘자 5만원	서필희 1만원
인 등	김명숙 1만5천원	김수정 1만원
	오창혁 1만원	김문용 2만원
	김성미 5천원	김연자 1만원
	김영희 2만원	노경정 2만원
	류윤희 1만5천원	서상태 2만원
	신인숙 5천원	신정옥 4만5천원
	이숙희 1만5천원	이숙희 2만원
	이승일 2만원	전재필 5천원
	전재호 1만원	한천숙 1만원
	홍경숙 1만원	황국희 2만5천원
	황금석 7천원	강춘희 2만원
초하루, 축원	김수라 3만원	박정순 2만원
	이영희 4만원	김지연 3만원
	나형진 2만원	손향숙 2만원
	송순분 2만원	송애자 2만원
	전태일 4만원	진영덕 2만5천원
108석등	이창형 3만원	문영자 2만원
	현미숙 3만원	
원불봉안	김승한 1만원	백동근 1만원
	백미경 1만원	심향숙 3만원
	양수한 4만원	이현숙 4만원
	최유자 3만원	강창현 2만원
	김금순 4만5천원	김점숙 2만원
	이현주 3만원	이호진 1만원
	조경희 5만원	
산신인등	권미연 5천원	권형식 5천원
	김애경 1만원	양미경 5천원
	전성복 1만원	전영미 5천원
	차상근 5천원	

법왕사 게시판



법당일년등 채영주 2만원
 평생위패 고연숙 10만원
 해오름후원 남옥연 10만원
 기 타 김재현 1만원 심영선 1만5천원
 이관수 2만원 전광환 1만원
 정영석 5만원 주석순 5천원

정무 대종사 1주기 추모다례 공양 동참하신 분

문지수(밤) 김상연(5만) 최규철(2만)
 백상현(2만) 신현수(5만) 박정순(1만5천)
 김순자(3만) 박종성(3만) 구제철(5만)
 전재술(5만) 김경희(2만) 김기춘(떡) 정광춘(5만)

감사드립니다

- ◎ 돼지저금통 회향하신 분
 배종석 배성민 이성현 이광진 문지수
- ◎ 백팔통장 회향
 구연진
- ◎ 공양미(20kg)
 장희빈 장우성 이호근 이태희 김민수
 추보성 박성영 김은지 홍세림 윤다경
 박호은 정민경 김기덕 신채원 김옥희
 박진태 이재학
- ◎ 과일공양
 이정생(초하루 과일 설판제자)
 시영기 김대운 정민경 박성영 박동근
 김상수 이태화
- ◎ 떡공양
 권순교 정보경 시영기 정시영 권혁일
 정민경 박종성 강대배 정광춘 이태화
 김태영 홍세림 박성영 박준용 김인수
 이영미 강동한 백수영 김휘성 남상철
 권지현 정영미 김성도 신현수 정 돈
 박종성 박경훈 최재원 배해동 황미경
 이재학 소리경전 공덕회 일동
- ◎ 꽃공양
 한진 기사식당 김복남 묘장엄

- ◎ 입시기도 옛공양
 이지우 양혜진 양봉훈 김옥희
- ◎ 대종공양
 신현수(4만) 신창희(4만)
- ◎ 경로잔치 도움 주신 분
 권보형(2만)
- ◎ 물품 보시하신 분
 유성종(공양미 40kg, 표고버섯 1box, 포도 1box)
 류윤만(스님 승복) 채제령(수공 모자보시 6개)
- ◎ 우담바라 합창단과 함께 7여년 동안 반주자로 활동
 하셨던 박수진 선생님께서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셨
 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수
 진 선생님의 뒤를 이어 새로 오신 민지는 반주자
 선생님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사보 도움 주신 분

울산 우성주택 권오성 200부 여래심 300부
 무명 300부 김재국 400부 이강희 100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
 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왕생극락하옵소서

- ◎ 한경남 법우님의 亡母부後人 청주 한공을웅
 靈駕의 막제가 10월 24일에 있었습니다.
 - ◎ 조성찬 법우님의 亡자모孺人 안동 권氏선녀
 靈駕의 막제가 11월 6일에 있었습니다.
 - ◎ 이정진 법우님의 亡자모孺人 진양 하氏경남
 靈駕의 기제사가 11월 14일에 있었습니다.
 - ◎ 김광현 법우님의 亡자모孺人 설성 김氏태선
 靈駕의 기제사가 11월 14일에 있었습니다.
 - ◎ 정운창 법우님의 亡母부後人 진양 정공현수
 靈駕의 기제사가 11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 석경진 법우님의 亡母부 後人 충주 석오군
 靈駕의 기제사가 11월 18일에 있었습니다.
-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해오름 소식

지역주민들의 건강 체크 안내



그동안 법왕사와 해오름요양원에 많은 격려와 후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방문하시는 불자님과 후원님들에게 혈압과 당뇨를 무료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체크 시간 : 월, 화, 목, 금, 토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건강 체크 기간 : 12월 말 까지

※ 요양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원 위생교육 실시



임소어르신과 직원들에게 위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건강을 면밀히 체크하여 항상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는 한국장례문화연구회

갑자기 닥친 흉사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장례문화연구회에서는 불자님들의 갑작스러운 흉사에 대비해서 장례식장(병원) 알선, 화장 예약, 묘지 조성(공원묘지, 풍수지리, 이장 등)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도와 드립니다.

장례 기간 동안에는 지도사를 3일 동안 무료로 파견하고, 도우미 2명도 3일간 지원하며, 운구 전용차량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회원가입(가입비 10만원)은 법왕사 중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례문화연구회

Tel. 053-795-4444

HP. 011-506-6237

Fax. 053-795-4444

E mail. chchy0900@naver.com



해오름 게시판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10월)

◎ 수입내역

김순태 1만원	김민주 1만원	장익분 1만원
김유진 1만원	김미옥 2만원	김수라 1만원
최분규 1만원	양나영 5천원	정광춘 5만원
신혜경 5천원	권해숙 5천원	문소연 1만원
안명희 1만원	황미선 2만원	현인숙 1만원
노수정 1만원	권계화 1만원	장우성 1만원
김정순 3만원	정규성 1만원	허성록 1만원
박원태 1만5천원	김유진 1만원	유명옥 1만원
김기덕 2만원	이임숙 2만원	손귀옥 1만원
박태숙 5천원	박창목 5천원	이현우 1만원
박홍상 2만원	이은주 1만원	문정애 2만원
여축동 1만원	최향정 1만원	류윤만 5천원
노귀자 5천원	이정옥 1만원	정무시 1만원
김영주 5천원	김정임 1만원	권숙자 1만원
현영희 1만원	강영도 2만원	이정훈 5만원
심규암 5천원	김정자 5천원	김기수 2만원
구정대 2만원	김순태 1만원	김민주 1만원

무기명후원금 79,080원

합계 1,243,850원

◎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25명 출금)
25명×75원 6,875원
- PROCMS(CMS월가입료) 33,000원
- CMS사용료(CMS월사용료) 33,000원
- CMS자동이체 수수료(17명 수수료) 4,730원
- CMS자동이체 수수료(8명 수수료) 2,310원
- CMS자동이체 수수료(26명 수수료) 7,260원
- 어르신부식구입
 - 과일 외 294,000원
 - 새송이 외 46,000원
 - 참기름 외 68,000원
 - 고구마 외 94,000원
 - 소고기 290,000원

• 식 대 15,500원

• 케첩 외 494,310원

어르신생신잔치음식구입(잡채 외) 120,000원

10월 총 사용내역 1,508,985원

잔액 - 265,135원 (2012년 10월말 기준)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신 분

여택동 에어매트

※ 후원해주신 물품은 와상어르신의 욕창방지에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요양보호사 윤순희

요양보호사 오금옥

※ 어르신을 모시는데 있어서 부처님을 모시듯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오름 게시판

● 영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
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
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전화를 주시면 입소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
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053)766-5767)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
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좌 5,000원부터)



임진년 동지맞이

7일간 불공기도

冬至

법왕사에서는 오는 12월 21일 임진년 동지를 앞두고 15일부터 7일간 동지맞이 기도를 봉행합니다.

동지는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서 어둠이 극에 달하고 다시 밝음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날이어서 양의 기운이 바야흐로 시생(始生)하는 절기입니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이 날을 아세(亞歲), 즉 작은 설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절에서는 이날 팔죽을 쑤어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는 풍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올해도 변함없이 팔죽을 쑤고 법회를 봉행하며 내년도 새 달력도 배포할 예정이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 입 재 2012년 12월 15일(토)
- ❀ 회 향 2012년 12월 21일(금)] 7일간
- ❀ 기 도 매일 오전 9시 30분
- ❀ 동참금 5만원

※ 동짓날 새해 달력을 배부합니다.



동지회향 방생법회

법왕사에서는 오는 12월 21일 동지불공 7일 기도를 회향하고 그 이튿날인 22일 여수 향일암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합니다. 여수 향일암은 풍광이 수려하기로 이름난 도량으로 바다에 접해 있어 방생법회를 봉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 일 시 2012년 12월 22일(토)
- ❀ 장 소 여수 향일암
- ❀ 출 발 오전 7시 법왕사 주차장
- ❀ 방생비 3만원



제23회 백고좌법회 보살계 · 불명 수지 및 회향 대설법회

법왕사에서는 제23회 백고좌법회 회향을 맞이하여 오는 12월 14일 제99일차 법회에서 해인사 율주이신 종진 큰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불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바로 오계(五戒)를 받아 지니는 것입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고 했습니다.

100일 동안 봉행한 백고좌법회를 마무리하는 회상에서 불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보살계수지법회에 불자 여러분들께서 수회 동참하시어 지혜와 복덕을 구축하시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회향일인 15일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이신 인환 큰스님을 모시고 이번 백고좌법회를 총결산하는 회향 대설법회를 봉행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증 명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 스님**

일 자 12월 14일 오전 11시

장 소 법왕사 복지관 대법당

동참금 20,000원

※ 불명을 받으실 분은 중무소로 미리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99일차
12월 14일
보살계 수계법문

종진스님
해인사 율주



● 100일차
12월 15일
백고좌 회향법문

인환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법사명단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81일차	11월 26일 圓	광명스님	비로선원 주지	91일차	12월 6일 困	동봉스님	경기도 광주 우리절 주지
82일차	11월 27일 圓	명산스님	해룡사 주지	92일차	12월 7일 圓	현웅스님	육조사 선원장
83일차	11월 28일 圓	상인스님	제천 정방사 주지	93일차	12월 8일 圓	지안스님	통도사 반야암
84일차	11월 29일 困	성우스님	군산 은적사 주지	94일차	12월 9일 圓	묘허스님	단양 방곡사 회주
85일차	11월 30일 圓	지운스님	자비정사	95일차	12월 10일 圓	법상스님	덕양선원 주지
86일차	12월 1일 圓	동휘스님	흥천 여래사	96일차	12월 11일 圓	종석스님	온양 불국사 주지
87일차	12월 2일 圓	혜성스님	함안 삼불사 주지	97일차	12월 12일 圓	지현스님	송광사 율원 율주
88일차	12월 3일 圓	지묵스님	장흥 보림사 불일암	98일차	12월 13일 困	실상스님	법왕사 주지
89일차	12월 4일 圓	뿐나디빠	한국 태리외다 불교 서울 해미법당 선원장	99일차	12월 14일 圓	종진스님	해인사 율원 율주
90일차	12월 5일 困	효상스님	가창 선흥사 주지	100일차	12월 15일 圓	인환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